

“너무 비싸 골프 안친다”...골프장 영업이익 ‘반토막’

호남지역 골프장 올 상반기 방문객 전년 대비 10% 감소 “주말 4인 130만원...시설·음식 질 더 떨어져 호갱된 듯” 코로나 엔데믹에 해외 라운딩 늘고 다른 취미로 갈아타

“골프장 이용료는 올랐는데, 잔디 상태나 음식 등 서비스 품질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비싼 돈 주고 골프장을 가는 게 호갱이 된 것 같아 불쾌합니다.”
광주의 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이모(43)씨는 이른바 ‘주말골퍼’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지인들과 어울려 골프를 즐기는 것이 최고의 취미이자 여가활동이다.
하지만 이씨는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오른 골프장 이용 요금 때문에 골프장을 방문하는 횟수가 부쩍 줄었다고 한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직후 골프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그린피와 캐디피 등 각종 요금이 크게 올

랐다”며 “광주 주변 골프장 주말 주요 시간대 그린피는 20만원 수준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트비와 캐디피 등을 더하면 한번 갈 때 30만원은 쓴다. 직장인 월급으로는 한 달에 한 번도 부담스럽다”며 “그린피는 물론, 그늘집과 클럽 하우스에서 파는 음식 값도 크게 올랐는데, 가격에 비해 질이 너무 형편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처가 식구들과 1년에 두 차례 골프모임을 했다는 노모(40)씨도 골프장 이용료가 오르면서 작년 부터 모임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 살고 있는 동서, 처제를 초청해 비교적 그린피가 저렴한 전남지역 골프장에서

모였으나, 비용이 만만치 않아 아예 모임을 없앴다.
노씨는 “주말 그린피 19만~23만원 정도에 캐디피를 15만원 받는 곳도 있다”며 “카트비와 그늘집 음식값을 더하면 한팀(4명)에 120만~130만원은 우습게 나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 골프모임에 130만원을 넘게 쓰니 차라리 그 돈으로 장인, 장모님 모시고 온 가족이 여행을 가거나 좋은 식사 한 끼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이후 호황을 누렸던 광주·전남지역 골프장들이 그린피 등 이용료를 계속 인상해오면서 지역 골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그린피 이외 카트비와 캐디피, 식사비용 등 모든 요금이 올라 골프 이용에 금전적 부담이 커지면서 골프 대신 다른 취미를 찾거나, 골프장 방문 횟수를 줄이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처럼 골프장을 찾는 발길이 줄면서 호남권 골

프장들의 방문객은 10% 가까이 감소하고, 매출액도 13% 상당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엔데믹 영향으로 아쩔 수없이 비싼 돈을 내고 국내 골프장을 찾았던 골퍼들이 해외로 골프 여행을 가거나 아예 취미를 갈아타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전국 18홀 이상 정규 골프장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골프장 내장객 수는 514만9197명으로 전년 상반기(552만1839명)에 비해 6.7% 감소했다.
특히 호남지역 골프장(5곳)은 올 상반기 28만9539명이 방문, 전년 같은 기간(32만120명)에 비해 내장객이 9.6%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제주(-17.4%)에 이어 전국 6개 권역 중 두 번째로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경기(-4.2%), 충청(-6.2%), 영남(-6.6%) 등에 비해서도 유독 감소가 두드러

졌다.
매출액 역시 줄었는데, 호남의 골프장 상반기 매출은 403억9900만원으로 전년(464억2600만원) 대비 13.0% 감소했다. 전국 평균(-5.2%)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역시 제주(-22.1%)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여기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더 떨어졌다. 호남 골프장의 영업이익은 전년(151억6800만원) 대비 51.6% 급감한 73억4500만원으로 집계돼 1년 새 반토막이 났다. 전국 평균(-24.5%)을 크게 웃돌고, 제주(-56.5%)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순이익 또한 같은 기간 83억1800만원에서 47억7500만원으로 42.6%나 줄었다.
전남의 한 골프장 대표는 “(코로나 특수가 있었던) 2021~2022년 당시에 비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는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며 “광주·전남권 골프장 대다수가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고병일(왼쪽) 광주은행장이 '2023 SUMMER 환전 페스티벌' 경품 당첨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SUMMER 환전 페스티벌' 경품 증정식

1등 100만원 등 212명 '행운'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12일 '2023 SUMMER 환전 페스티벌' 경품 증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증정식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진행된 환율 우대 행사와 함께 한 푼 없는 모바일 행운의 복권 추첨 결과에 따른 것이다.
광주은행은 212명의 당첨자를 선정해 1등 당첨자 1명에게 백화점상품권 100만원, 2등 당첨자

(1명) 백화점상품권 50만원, 3등 당첨자(10명)에 광주은행 기프트카드 5만원, 행운상 당첨자(200명)에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5000원을 전달했으며, 경품 미당첨 고객에게는 외화예금 가입 시 사용 가능한 환율우대쿠폰을 제공했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2023 SUMMER 환전 페스티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외환 수요와 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무역협회-광주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협약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동원)는 12일 광주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대표 김현성)과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디지털 무역 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무역협회는 일자리재단과 2016년부터 중국, 중동 등지 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사업을 함께 추진해왔다. 유관기관 공동 수출지원기관협의회, 무역의날 행사 등을 협업했고, 올해는 제2중동분방을 활용해 UAE 수출상담회를 함께 주관해 수출상담 144건, 120만 달러 수출협약 체결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체결을 계기로 협력의 폭을 수출 전주기로 확대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애로해소 등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수출마케팅, 해외바이어 초청상담 등 다양한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해 성공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동원 본부장은 "향후 디지털무역 트렌드에 대응해 기업 모집 및 관리의 디지털화부터 우리 기업



이동원(왼쪽) 본부장과 김현성 대표가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무역협회 제공>

의 온라인 해외시장개척 역량 축적에도 다각도로 협력할 것"이라며 "두 기관의 강점을 합쳐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판로개척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업계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본부세관, 추석 연휴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철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과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오는 18부터 10월 3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또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

원한다.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내 미 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이달 14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도 운영한다.
수출기업의 환급 신청시 평균 2일 상당 소요됐던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고, 특별 지원기간에는 환급 업무처리 마감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8시로 2시간 연장 운영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캄보디아 교류 업무 협약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는 지난 11일 캄보디아 정부와 한국-캄보디아 간 중소벤처기업 교류 및 동남아 사업 진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캄보디아 중소벤처기업 교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광주·전남 벤처기업의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 글로벌 사업 진출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한중중소벤처기업교류추진위원회와 광주전남 벤처기업협회가 주관한 이번 협약식에는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임 시는 차관이 초청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와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는 양국 중소벤처기업 교류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양국 중소벤처기업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연계 및 공동사업 추진, 한국 기업 캄보디아 진출 지원 및 투자인프라 조성 과 투자연계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을 추진한다.
임 시는 차관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한국과 캄보디아의 중소벤처기업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한국 기업의 캄보디아 진출을 통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 전제로 사업을 확장할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와 한중중소벤처기업교류추진위원회, 캄보디아 정부 등 관계자들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제공>

수 있을 것"이라며 "10월에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및 협회 관계자들을 캄보디아로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김복주 한중중소벤처기업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캄보디아에

진출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지역 기업들이 동남아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발판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어그 계절이 돌아왔어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양털 신발 브랜드인 '어그(UGG)'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점은 내년 1월까지 '어그(UGG) 팝업 매장'을 운영, 오픈 기념으로 오는 14일까지 구매 금액대별로 5%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TP, 국제무역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개도국 혁신생태계 조성 협력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영집)은 김영집 원장이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회장 자격으로 지난 5일~6일 스위스 제네바 국제무역센터(ITC) 본부를 방문해 파렐라 코크-헤밀턴 사무국장 과 '개도국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제무역센터는 UN과 WTO가 공동 설립한 '개도국 중소기업 수출 및 역량 강화 지원 전문 국제기구'로 글로벌 수출 시장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테크노파크 모델을 세계에 수출하는 차원에서 아프리카의 선도적 개발도상국인 케냐와 중남미 콜롬비아와 테크노파크의 협력 사업을 추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기술이전 및 혁신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밖에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알렉스 라헬 기술혁신지원부 책임자, 권규우 국장 등과 면담하고 개도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WIPO-중기부-한국TP의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WIPO와 한국TP는 물론 광주테크노파크와도 특허, 출원, 인준 등의 국제적인 협력증진과 아카데미 교육협력을 추진하고 매우 취약한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을 공동 추진하기

로 했다.
김영집 원장은 "국제기구들과 교류협력을 통해 K-테크노파크를 확산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혁신생태계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36.58(-20.30)
↓ 코스닥	898.04(-14.51)
↓ 금리(국고채 3년)	3.863(-0.002)
↓ 환율(USD)	1327.80(-3.30)